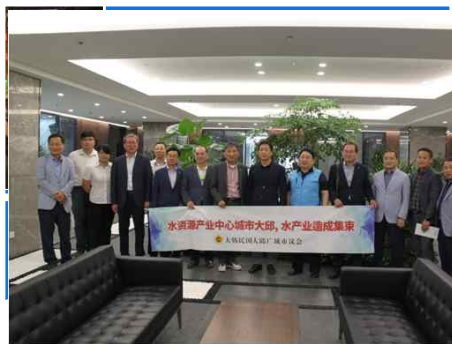


2016년 경제환경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귀국보고서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목 차

I . 연수목적 -----	2
II . 연수개요 -----	2
III . 방문도시별 현황 -----	6
IV . 주요 연수내용 -----	14
● 왕부정 거리 견학(베이징 전통시장)	
● 물산업 관련 중국국영기업(중원환보) 방문	
● k-beauty medical center 방문	
● 회민[회족]거리 견학(서안 야시장)	
● 도심지 내 공원·녹지시설 조사	
V . 연수성과 -----	19
VI . 언론보도 -----	20

2016년 경제환경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귀국보고서

I

연수목적

- 서문야시장 개장 등 지역의 특성화시장에 대한 향후 글로벌 명품시장으로의 육성 등 활성화 방안 검토
- 지역 물 관련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추진상황 파악 및 물산업 관련 중국 기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국내 의료관광시장의 확대에 따라 해외환자 유치 등과 관련한 중국 현실태 파악 및 네트워크 강화
- 도시환경정책의 일환으로 해외 주요 도심지와 문화유적지 주변 공원 및 녹화시설 우수사례 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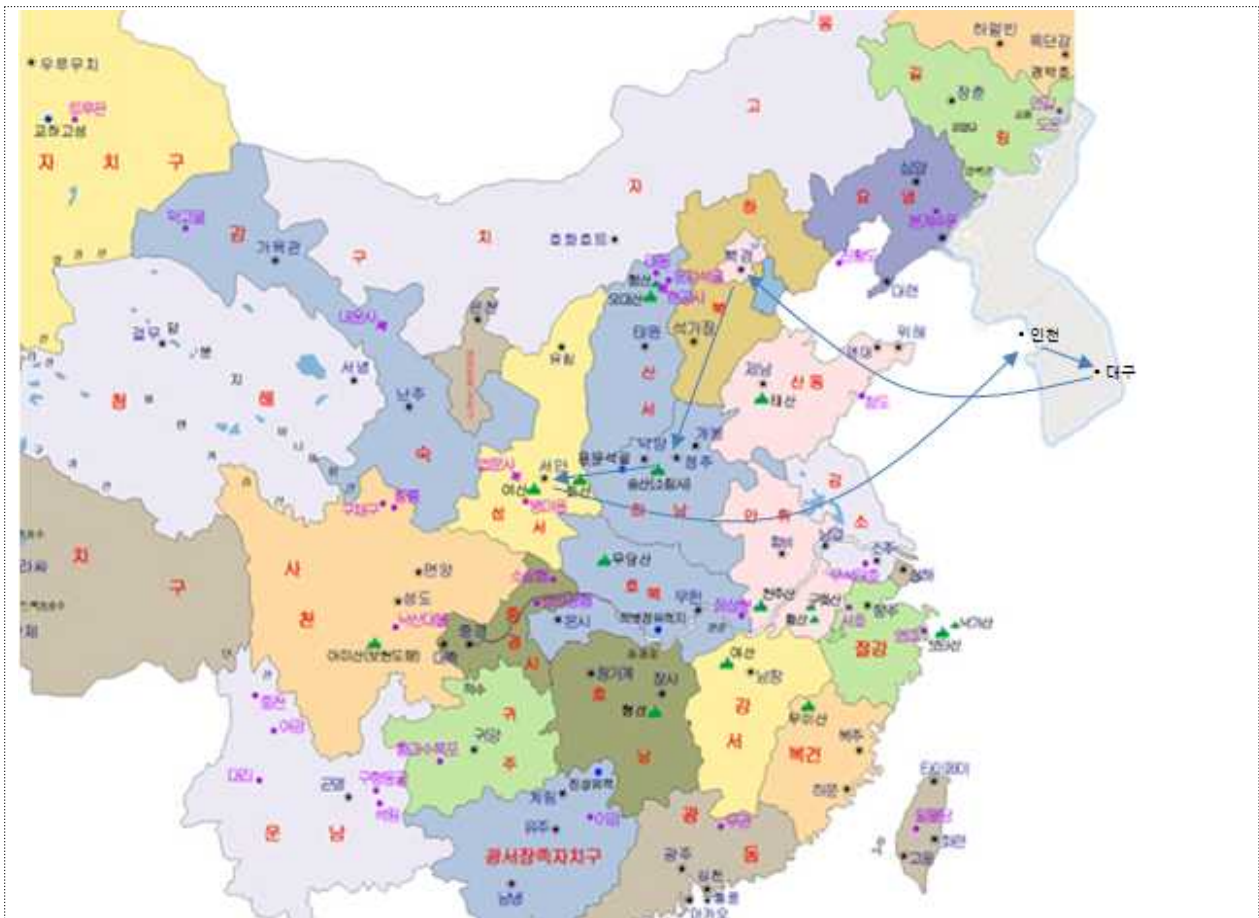
II

연수개요

- 기 간 : 2016. 9. 19(월) ~ 25(일) / 6박 7일
- 방 문 지 : 중국 (베이징, 정저우, 개봉, 뤼양, 시안)
- 연 수 자 :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 외 13명
- 연수내용
 - 물산업 관련 중국 국영기업체(중원환보) 방문
 - 물산업 관련 중국 내 현황 확인 및 기업체 방문, 물산업 분야 기술협력 MOU체결 지원
 - 중국 유명 야시장(왕푸징거리, 회민거리) 견학

- 중국 유명 야시장 견학을 통해 우수 아이템 벤치마킹 등 지역 야시장의 활성화 방안 모색
- 한중합작병원(K-Beauty Medical Center) 방문
 - 지역 의료기관과 중국 현지 의료기관간 투자합작을 통해 시안에 개원한 K-Beauty Medical Center 방문, 현지 운영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 논의
- 중국 주요도시 및 문화유적 방문, 녹화시설 현황 조사
 - 전문대가·송도어가·병마용 등 주요거리 및 유적지 주변 공원·녹화시설과 대구시의 비교견학을 통한 개선방안 강구

이동경로



※ 대구 ⇒ 베이징 ⇒ 정저우 ⇒ 뤼양 ⇒ 시안 ⇒ 인천 ⇒ 대구

연수일정

일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지	비 고
9.19 (월)	대구 (12:35)	베이징 (14:10)	<항공기>	◦ 대구공항 ⇒ 베이징공항
	베이징		왕부정거리	◦ 야시장 견학
9.20 (화)	베이징		천안문광장 등	◦ 문화유적 주변 공원·녹지시설 조사
9.21 (수)	베이징 (09:27)	정저우 (12:53)	베이징역, 정저우역 <열차>	◦ 베이징 ⇒ 정저우
	정저우		중원환보	◦ 물산업 관련 기업 방문 (MOU 체결)
9.22 (목)	정저우 (09:00)	카이펑 (10:30)	<전용버스>	◦ 정저우 ⇒ 카이펑
	카이펑		개봉부	◦ 전통 가로시설 조사
	카이펑 (18:00)	뤄양 (19:30)	<전용버스>	◦ 카이펑 ⇒ 뤼양
9.23 (금)	뤄양 (13:24)	시안 (15:08)	용문역, 시안역 <열차>	◦ 뤼양 ⇒ 시안
	시안		시안의과대학	◦ 의료관광, 교류 관련 간담회
9.24 (토)	시안		K-beauty medical center 회민거리	◦ 해외진출 합작투자병원 방문 ◦ 야시장 견학
9.25 (일)	시안 (11:15)	인천 (14:50)	<항공기>	◦ 시안공항 ⇒ 인천공항
	인천 (15:30)	대구 (19:30)	<전용버스>	◦ 인천공항 ⇒ 대구

□ 연수자 명단

연번	성명	소속	직위	비고
1	오철환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	
2	신원섭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	
3	최인철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	
4	최길영	대구시의회	부의장	
5	최광교	대구시의회	획행정위원장	
6	서경현	대구시	경제정책과장	
7	김재동	대구시	의료산업과장	
8	강진삼	대구시	환경정책과장	
9	윤용문	대구환경공단	이사장	
10	권업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11	양유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원장	
12	서동달	대구시의회	경제환경팀장	
13	이성용	대구시의회	주무관	
14	박형순	대구시의회	주무관	

Ⅲ

방문도시별 현황

■ **북경(北京, 베이징)**

스위스 면적과 거의 비슷한 크기로 서울의 27.7배의 크기이다. 모래폭풍에 취약하고 바다, 호수 등 자연적인 수역이 없는 평원지대에 위치한 베이징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외진 지역에 위치한 수도 중 하나이다. 입지조건이 취약하고 많은 공장들로 인해 공기오염은 아주 심각한 상태로 세계보건 기구가 권고한 안전 수준보다 5배나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공장을 베이징 외곽으로 옮기는 등, 여러가지 대책들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인구는 도심에만 850만 인구가 거주 하고 있으며 교외의 인구까지 포함하면 1,700만 가량의 인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대부분 한족으로 96%를 차지하고 만주족2%, 회족2%, 몽골족 0.3%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의 인구는 유교사상으로 국가지도이념으로 채택될 만큼 전 인구가 유교영향을 받고 있으며 도교와 불교신자들로 북경의 종교를 이루고 있다. 문자는 한자를 사용하며, 사용하는 통화는 元으로 위안이라고 발음한다. 한국과 비교해서 1시간 정도의 시차가 나는데 북경이 한국보다 한시간 가량 느리다. 중국 중앙 정부가 이 곳 북경에 위치해 있으며 전세계의 몇 안 되는 공산주의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경제분야 등 부분적으로 전적인 공산주의의 특성만을 갖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중국은 경제규모에 있어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4번째로 크다고 볼 수 있다. 베이징은 실업률의 상승세와 빈곤층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반면에 도심에는 무수한 상점과 많은 쇼핑객들을 통해 밝은 경제활동의 분위기를 볼 수 있다.

[주요명소]

- ▶ **왕부정 거리(王府井)**
- ▶ **만리장성(萬里長城)**
- ▶ **자금성(紫禁城)**
- ▶ **십찰해(什刹海, 스킨하이)**
- ▶ **천안문광장(天安门广场)**



■ 정주(鄭州 : 정저우)

◇ 하남성 ◇

황하의 남쪽에 펼쳐진 곳이라 하남성(河南省)이라 이름 붙여진 이곳은 고대문화의 발상지 중 하나로 고대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다. 6대 고도 중에서 낙양, 개봉이 이 성안에 모두 있고 성도인 정주도 3500년의 역사를 지닌 오래된 도시다. 이렇게 고도가 많아서 그런지 하남성에는 유명한 유적과 유적지도 많은데, 그 숫자만 해도 130여만 건이다. 개봉의 소림사와 낙양의 용문석굴은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하며 중원문화의 발양지인 하남을 대표할 만하다.

◇ 정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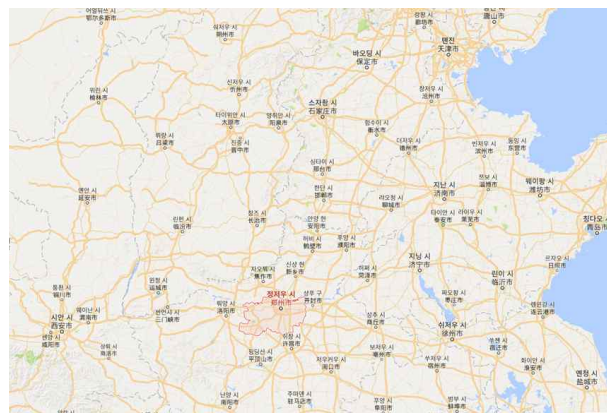
하남성 성도로, 하남성 중부에 위치한다. 북쪽으로는 황하에 인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송산(嵩山)에 기대어 있으며, 동남쪽에는 광활한 황준(黃準)평원이 있다. 온난대 대륙성 기후로 사계절이 분명하고 연평균 기온은 14.4℃이다. 7월이 가장 더운데, 평균 기온은 27.3℃이며, 1월은 가장 추운 달로 평균 0.2℃이다. 연평균 강수량은 641mm 이다.

주변에는 춘추전국시대·한(漢)·당(唐) 시대의 고분들이 많으며, 남방 약 35 km 떨어진 신정(新鄭)은 춘추시대 정(鄭)의 수도였다고 한다. 교육기관에 정저우 [鄭州]대학, 허난[河南]의과대학, 외국어대학 등이 있다. 문화재에 박물관, 상(商)의 궁성 옛터(약 3500년 전 건립), 황허강[黃河], 중국 오악(五岳)에 속하는 쑹산[嵩山], 소림사, 송능[宋陵:북송 7황제와 황후 20명의 능] 등이 있다.

중국의 면방직, 방직기계, 구리공업 중심지이며 중국에서 제일 큰 철도교통 중심지이다. 징광철도[京廣鐵道:베이징 ~ 광둥]와 룡하이철도[隴海鐵道:렌윈강~정저우]의 교차점이며 북쪽 26km 지점에 황허철교가 있다. 고속도로는 107번, 310번, 카이펑[開封], 뤼양[洛陽], 쉬창[許昌], 안양[安陽] 등이 있다.

[주요명소]

- ▶ 대관음사(大觀音寺)
- ▶ 중원복탑(中原福塔)



■ 개봉[開封, 카이펑]

황허강[黃河] 남쪽의 대평원에 있으며 련윈[連雲]~란저우[蘭州]간 롱하이철도 [隴海哲道] 연변에 위치하는 중국 7대 고도(古都)의 하나이다. 명칭은 전국시대의 대량(大梁) 남쪽 25km 지점에 있는 카이펑읍(邑)에서 유래되었다.

춘추전국시대 위(魏), 5대 10국의 양(梁), 진(晉), 한(漢), 주(周) 및 북송(北宋), 금(金) 등의 왕조가 이곳에 수도를 건립하였다. 위의 혜왕(惠王)이 안읍(安邑)에서 이곳으로 도읍을 옮기고 대량이라 칭하면서 위가 부강해짐에 따라 이곳도 번영하였다.

BC 3세기 말에 위가 망하자 카이펑도 폐허가 되어 한(漢) 이후에는 지방도시로서 존속하였다. 수(隋)·당(唐) 시대에 이르러 강남(江南)개발이 진척되어, 변하(汴河:通濟渠)에 의해 대운하와 연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자 물자유통의 중심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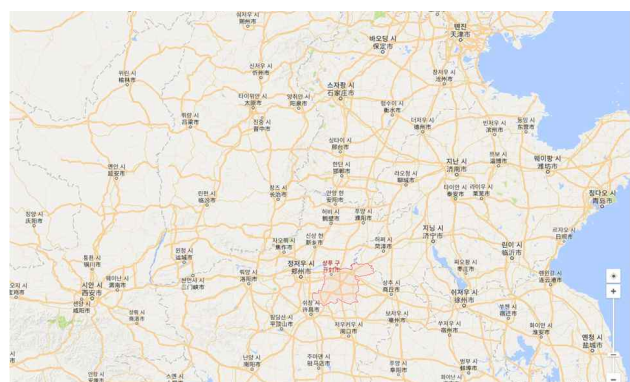
5대10국의 후량(後梁)은 카이펑에 도읍을 정하고 동도개봉부(東都開封府)라 하였으며, 후진(後晉)·후한(後漢)·후주(後周)도 도읍으로 삼고 동경(東京)이라 하였다. 그후 송(宋)이 도읍으로 정함으로써 일찍이 없었던 큰 발전을 이룩하여 삼중(三重)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시가지가 되었다. 명청대(明清代)에는 허난성의 성도였다. 1948년에 시로 승격되었다.

12세기 초 여진족의 침입으로 한때 쇠퇴하였으나 금이 지배하면서 변경(卞京)이라는 칭호가 붙었고 뒤에 남경(南京)으로 개칭, 13세기 초에는 국도가 되었다. 원(元) 이후 계속하여 허난 지방의 행정 중심지로 존재하였고, 중화민국 시대에는 카이펑부(府)를 폐지하고 중심지인 상푸현[祥符縣]을 카이펑현으로 바꾸었다.

현재는 정저우시[鄭州市]가 허난성의 행정 중심지이나 허난성 동부의 경제 중심지로 농산물을 집산하는 외에 면포·철기 등의 재래공업과 기계·화학·제약 등 근대공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밖에도 제지술·계기·전력·방직 등의 공업이 발달하였다. 농업으로는 밀·수수·콩 등을 산출한다.

[주요명소]

- ▶ 개봉부(開封府)
- ▶ 송도어가(宋都御街)



■ 등봉 [登封, 덩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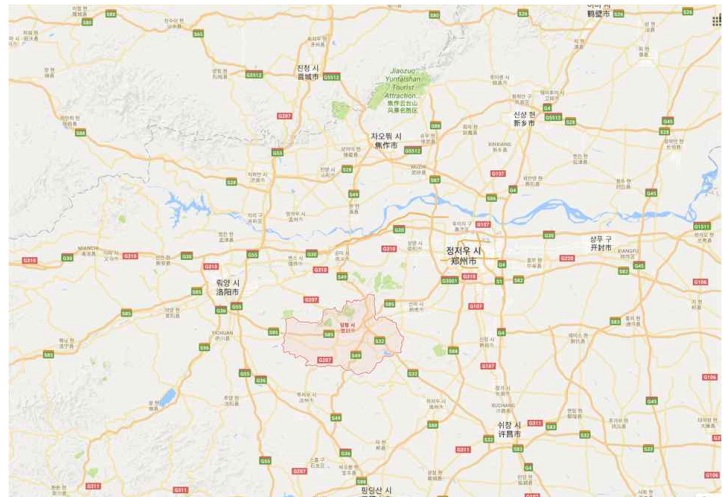
중국 허난성 서남부 뤼양[洛陽] 남쪽 약 50km, 쑹산[嵩山]의 남록(南麓)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일찍이 한대(漢代)에 기원을 둔 고도(古都)이다. 옌스[偃師]에서 환위안관[轘轅關]을 넘어 정저우[鄭州]에 이르는 도로상의 교통요지이며, 정저우와의 거리는 67km이다. 연평균기온 14.3℃, 연평균강수량 524.4mm이다.

진(秦)나라 때 양청현[陽城縣]으로 불렀다가 당(唐)나라 때 덩펑현[登封縣]으로 개명하였다. 1994년에 시(市)로 승격하였다. 부근에서는 밀·두류(豆類)·수수·옥수수·잡곡·잎담배 등의 농산물을 산출하며, 공업으로는 전력·화학비료·시멘트·도자기·염색 등이 활발하다.

교육기관으로는 3개의 직업학교와 71개의 중·고등학교가 있다. 문화유적으로는 1,5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소림무술의 발원지 소림사(少林寺)를 비롯하여 쑹산·중위묘[中岳廟]·쑹양서원[嵩陽書院]·관성대(觀星臺)·쑹웨사탑[嵩岳寺塔] 등이 있다.

[주요명소]

- ▶ 쑹산(嵩山)
- ▶ 탑림(塔林)
- ▶ 소림사(少林寺)



■ 낙양[洛陽, 뤼양]

황허강[黃河]의 지류인 중국 허난성 서부 뤼허강[洛河] 유역에 위치한다. 중국의 7대 고도(古都)로 꼽히며, 성도(省都)인 정저우[鄭州]와의 거리는 140km이다. 연평균기온 14℃, 연평균강수량 703.9mm이다. 부근 일대는 뤼허강 연안의 소분지로, 예로부터 화베이평원[華北平原]과 웨이수이[渭水]분지를 잇는 교통요지를 이루었다. 장안(長安:지금의 西安)과 더불어 중국 역사상 자주 국도(國都)가 된 곳으로 유명하다.

BC 11세기에 주(周)나라 성왕(成王)이 동방경영의 기지로 축성한 데서 비롯되며, 당시에는 낙읍(洛邑)이라고 하였다. 그뒤 BC 770년에 주왕조가 현재의 산시성[陝西省]의 호경(鎬京)으로부터 낙읍으로 천도한 뒤 동주(東周)의 국도로 번영하였고, 후에 후한(後漢), 삼국(三國)의 위(魏)·서진(西晉)도 이곳에 도읍하였는데, 후한 때부터 도성의 규모가 남북 9화리(華里:1화리=0.5km), 동서 6화리였기 때문에 구륙성(九六城)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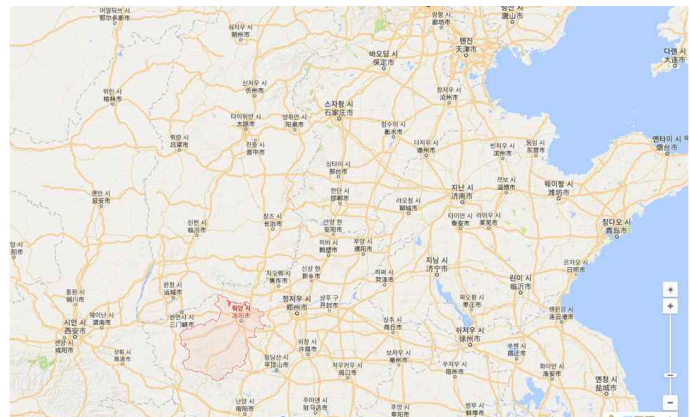
한편 정식명칭은 전한(前漢) 때에 낙읍(洛邑)으로 불리다가, 후한이 AD 25년에 국도로 정하면서 현재 명칭인 뤼양으로 고쳤다. 후에 북위(北魏)가 화북을 평정하자, 493년에 효문제(孝文帝)가 산시[山西]의 다통[大同]에서 이곳으로 천도하여, 구륙성을 중심으로 시역(市域)을 동서 20화리, 남북 15화리로 확장하였다. 호수(戶數) 약 11만, 불사(佛寺) 1,378을 헤아렸던 당시의 모습이 양현지(楊銜之)의 《낙양가람기(洛陽伽藍記)》에 기술되어 있다.

수(隋)나라가 중국을 통일하자, 605년에 병란으로 황폐한 북위의 뤼양성 서쪽 15km 지점에 거의 같은 규모(주위 69화리)의 새로운 성을 건설하고, 장안의 부도(副都)로 삼아 동도(東都)라고 불렀는데, 지금의 뤼양의 전신이다. 당(唐)나라도 부도로서의 뤼양의 지위를 이어받아 동도하남부(東都河南府)라고 불렀으나, 수·당시대에는 서쪽의 장안이 정치도시인데 대하여 뤼양은 경제도시로 대운하를 따라 수송되는 강남의 물자 집산지로 번영하였다.

오늘날 뤼양은 다시 발전하여, 정저우와 더불어 허난성의 2대 공업도시가 되었다. 중국 최대의 트랙터공장을 비롯하여, 베어링·유리·화학비료 등의 공장이 입지하고, 대규모의 면방직 콤비나트가 형성되어 있다. 한편 부근에는 석탄 및 기타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또 대도시 중에서는 찬먼샤[三門峽]댐의 수력 전기를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 한편, 미사일·항공기지 등이 있어서 군사적으로도 크게 중요시된다. 부근 농촌에서는 밀·옥수수·콩·목화 등의 농산물을 산출하며, 특히 무단화[牡丹花]가 유명하다.

[주요명소]

- ▶ 용문석굴(龍門石窟)
- ▶ 향산사(香山寺)



■ 서안 [西安, 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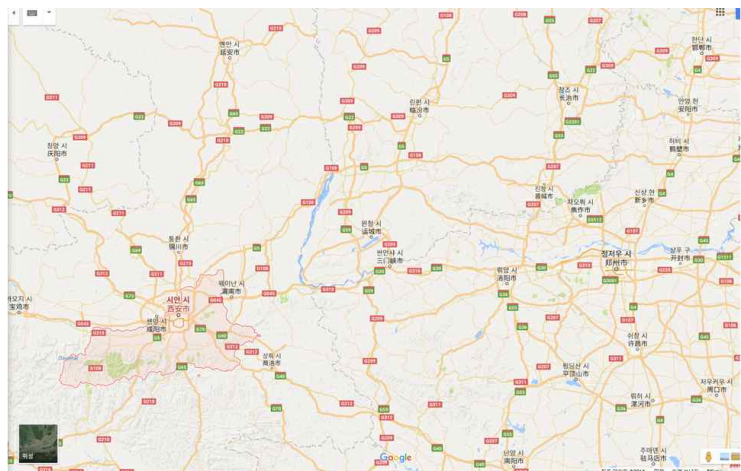
중국 산시성의 성도이며, 행정구역은 8개의 구와 5개의 현으로 나뉜다. 관중 분지(關中盆地)의 중앙부, 북쪽으로 웨이하강[渭河]이 동류하고 남쪽에 중난산 [終南山]이 솟아 있는 곳에 위치한다. 시안은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세운 호경(鎬京)에서 비롯되며, 그뒤 한(漢)나라에서 당(唐)나라에 이르기까지 약 1,000여 년 동안 단속적이었으나 국도(國都)로 번영한 역사적 도시로 그 동안 장안(長安)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왔다. 1943년에 시(市)가 설치되었다.

가장 번영했던 당대(唐代)에는 동서 9.5km, 남북 8.5km의 규모에 인구 100만 이 넘는 계획적인 대성곽 도시를 이루어 멀리 서방에도 그 이름이 알려졌다. 그러나 당나라의 쇠퇴와 그에 따른 병란으로 장안도 파괴되어 쇠퇴하였다. 현재의 시역(市域)은 명(明)나라 때 구축한 주위 13km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구 시가와 교외로 되어 있으며, 명·청대에 서안부(西安府)를 설치한 바 있으나 중화민국 때에 그것을 폐지하고 산시성에 직속시켰다.

역사적 도시로 사적이 풍부하다. 남쪽 교외에 있는 쓰언사[慈恩寺]의 다옌탑 [大雁塔]은 현장(玄奘)이 창건한 45m의 7층 전탑(塼塔)으로 그 위에서 조망하는 관중분지의 풍경이 뛰어나다. 그밖에 북서쪽에 있는 젤푸사[薦福寺]의 샤오옌탑[小雁塔]·양귀비(楊貴妃)가 목욕을 했다고 전해지는 화칭못[華清池]·우러우사[無漏寺] 등이 유명하다. 또 성내에 있는 역사박물관(옛 孔子廟)에는 부근에서 출토된 유물이 진열되어 있고, 북쪽의 비림(碑林)에는 당·송(宋)나라의 고비(古碑)가 많이 보존되어 있다.

[주요명소]

- ▶ 병마용갱(兵馬俑坑)
- ▶ 진시황릉(秦始皇陵)
- ▶ 시안성벽(西安城牆)
- ▶ 회민(회족)거리



IV

주요 연수내용

□ 왕부정 거리 견학(베이징 전통시장)



왕푸징은 '왕부(王府:왕족의 저택)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왕족과 귀족의 저택이 모인 곳에 상질의 물이 나오는 우물이 있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실제 이곳은 청 건륭제 시대에 귀족과 고급 관료의 저택이 있던 곳이며 왕푸징다제(王府井大街)와 동안먼다제(東安門大街)의 교차점에 우물의 위치가 청동 표식으로 남아 있다.

지금의 왕푸징은 베이징에서 가장 변화한 거리로, 쇼핑의 중심가로 거듭난 이래 한국의 명동과 비슷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남북으로 800m에 이르는 도로는 차 없는 거리로 지정돼 여행자들이 대로 한복판을 마음 놓고 활보할 수 있다. 거리 양쪽으로 커다란 쇼핑몰과 백화점이 뺨뺨하게 들어차 있고, 그 사이사이로 역사가 오래된 상점들이 보인다. 취안쥐더, 거우부리, 둥라이순 등 중국 전통 음식점들도 늘어서 있다.

왕푸징의 한가운데에는 대형 백화점 신둥안스창(新東安市場)이 있다. 신둥안스창의 지하에는 청대의 왕푸징을 재현한 거리에 상점들이 모여 있는 라오베이징이타오제(老北京一條街)가 있다. 신둥안스창의 대각선에는 유명 야시장인 동안먼메이시팡(東安門美食坊)이 있다. 매일 밤 홍등을 밝힌 포장마차가 장사진을 치는데 이곳에서 베이징의 명물 꼬치음식(참새, 애벌레, 전갈, 뱀 등)을 맛볼 수 있다.

□ **물산업 관련 중국국영기업(중원환보)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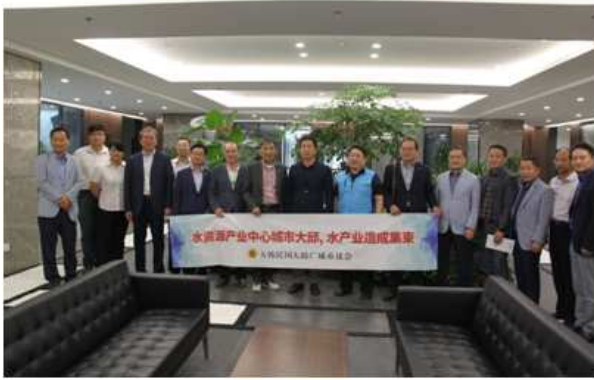
중원환보고분유한공사

- 소재지 : 하남성 정주시
- 동사장 : 리지엔핑(李健平)
- 업 종 : 오수 및 슬러지처리, 중수이용, 열공급 사업 및 공급망 유지보수, 시 공공사업 등의 사업
- 용 량 : 오, 폐수 처리장 11개(315만톤/일) 운영
- 재 무 : 자본금 485억원, 자산 3,300억원, 매출 880억원
- 주 주 : 정주아능 열전유한공사(마카오합자), 정주시, 정주시 열력
- 주 식 : 심천거래소 상장
- 직원수 : 570명
- 연 혁
 - 1997년 : 백합고분유한공사
 - 2007년 : 중원환보고분유한공사로 변경



<대구환경공단과 중국 중원환보 간 기술협력 MOU체결>

- 일시 : 2016. 9. 21. 16:00
- 장소 : 중국 정주 중원환보 본사
- 참석 : (대구시)오철환 경제환경위원장, 운용문 환경공단이사장 외 12
(중 국)리지엔핑 동사장 외 11명
- 내용 : 폐수처리 등 물산업 관련 환경공단 현황설명 및 기술협력 MOU 체결



중국 내 대구환경공단 협력 기업체인 정주시 중원환보를 방문, 회사소개·물산업 관련 대구환경공단 투자설명 등 상호 의견교환 후 양 기관 간 향후 기술협력에 대한 MOU체결이 이루어 짐.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오철환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 또한 대구시와

중국(정저우시) 간 물산업·환경 분야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양국간 교류가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였다.

이번 양 기관 간 MOU체결은 중국 정저우시 국영기업인 중원환보의 요청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대구환경공단의 물처리 관련 기술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고, 대구환경공단의 물처리 기술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K-beauty medical center 방문

K-BEAUTY MEDICAL CENTER

□ 사업개요

- 총 사업기간 : 2013. 11.~2022. 10.(8년 11개월)
- 총 사업비(국내자본 해외투자) : 2억원, * 국외 자본투자 : 40억원
- 협력 병원 : 중국 시안 제2부속병원(국립)
- Center 규모 : 3개과 진료(치과, 성형, 피부) 약 700평
- 운영 방식 : 시안 제 2부속병원 운영에 따른 컨소시엄 의료기관 의사 파견, 한국청년취업연구원에서 운영지원
- 의료 장비 : 시안 제2부속병원 측에서 의료장비 제공
- 의사 인건비 : 파견 의사에 대해 시안 제2부속병원에서 부담

□ 추진 경위 및 기타 사항

- 2014년 4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14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모사업(국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진행됨.

<행복천사 사랑미소 자선 의료봉사 발표회>

- 일시 : 2016. 9. 24. 10:00
- 장소 : 중국 서안 제2부속병원
- 참석 : (대구시)오철환 경제환경위원장 외 13명
(중 국)이강국 서안 총영사, 서안 제2부속병원장 외 10명
(의료팀)정희창 영대의대교수 외 4명
- 내용 : 중국 내 구순구개열 진단 아동에 대한 한중의료팀의 합동 의료봉사활동 발표회



중국 내 가정형편 등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구순구개열 진단 아동에 대하여 중국 서안에서 한중합작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K-beauty medical center 주관으로 의료봉사활동 계획에 대한 발표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중국측의 의료봉사활동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이 있었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한국측 의사들의 인터뷰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구시의회를 대표하여 오철환 경제환경위원장의 인사말과 이강국 서안 총영사의 봉사활동 지원증서 전달식에 최길영 부의장이 함께 참석하여 힘을 보탰다.

<K-beauty medical center 관계자 격려>

- 일시 : 2016. 9. 24. 11:30
- 장소 : 중국 서안 K-beauty medical center
- 참석 : (대구시)오철환 경제환경위원장 외 13명
(센터)한국청년취업연구원 관계자 외 5명
- 내용 :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현지 근무중인 관계자 격려



□ 서안 회민[회족]거리 견학(서안 야시장)

역사적으로 회족의 기원은 중국 당송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들은 아랍이나 페르시아에서 상인으로, 병사로 당에 왔다가 정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회족은 중국의 소수민족 중 하나로 이슬람교를 믿고 있으며, 유교나 불교를 믿는 한족과는 다른 문화를 갖는 소수민족이 시안 회족거리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다. 회족은 이슬람교 교리에 따라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이 골목은 양고기가 유명하고 골목 전체에 양고기 굽는 연기가 가득했다고 한다.





중국 내에서도 유명한 야시장인 만큼 외국인들의 방문 못지 않게 중국 내국인들도 많은 곳이다. 입구에서부터 시장을 찾은 사람들로 발걸음을 옮기기 힘들 정도였지만, 그것이 이곳의 매력인 듯 북적거림에 몸을 맡겨 여기 저기 둘러보는 즐거움이 컸다.

회민거리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양꼬치가 널리 알려져 있다. 즉석에서 고기를 장만하여 화력이 센 숯불에 양념을 몇 겹 바르면서 구워내는 상인들이 손이 바쁜 만큼 맛을 보려는 사람들도 많다. 우리나라에서 맛보는 양꼬치와는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음식들이 즐비하게 진열되어 있다.

대구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문야시장이 이곳 회민거리만큼이나 유명해 지려면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곳의 양꼬치처럼 서문야시장의 특별한 음식 한가지는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또한 장기적인 야시장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 시장 육성이 아닌, 관광객들의 자발적인 방문으로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 도심지 내 공원 · 녹지시설 조사





중국은 기본적으로 광대한 영토를 가진 나라이다. 그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시설이나 건축물들의 규모가 생각 이상으로 크다. 그에 따라 부속 녹지 시설이나 공원들도 규모가 큰 편이다. 이번 연수과정에서 거쳐 온 도시들을 볼 때, 과거 중국이라는 나라를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어느 선진국들의 도시 못지 않게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물론 도로교통에 있어서는 체계적인 신호체계가 없어 다소 혼란스러워 보이긴 했으나, 도심지나 문화유적지 주변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본받아야 할 점도 많아 보인다.

특히, 시설물 청소와 관련해서는 많은 인구 덕택인지는 모르겠으나, 청소인력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고 질서유지원 또한 생각이상으로 많았다. 그래서 보도를 비롯해서 시설물 주변이 매우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지나가는 곳곳의 조경 또한 사람들이 쉬었다 가기 편하게 조성되어 있는데, 중국풍의 독특한 분위기가 반영되어 있어 우리지역의 도심지 주변 공원이나 녹지시설에도 대구만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V

연수성과

- 중국 내 유명야시장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서문야시장 등 지역 특성화시장에 대한 장기적 발전방안 제시
 - 지역 전통시장의 대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왕부정 거리-북경오리, 회민거리-양꼬치 등과 같이 시장마다의 대표할 만한 음식이 필요할 것이며,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찾아 오게 만드는 이벤트나 특색이 있어야 할 것임.
- 해외 합작투자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확대
 - 중국 서안 제2부속병원 관계자들과의 의료분야 교류에 대한 의견 교환
 - 대구 의료산업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합의 및 향후 발전방향 논의
- 물산업 관련 중국 국영기업체 방문, 관계자와 의견교환 및 물처리 분야 대구시 산하기관(대구환경공단)과의 MOU체결
 - 물처리 분야 대구환경공단 기술 소개, 기술협력 및 투자방안에 대한 논의
- 우수 공원·녹화시설의 벤치마킹을 통해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문화유적지 주변 쾌적한 환경유지 방안 및 미세먼지 저감방안 벤치마킹 가능여부 검토.

VI

언론보도

<환경일보, 2016.9.26. 보도>

중국 정주시 중원환보고빈유한공사와 업무협약



업무 협약식

[대구=환경일보] 최문부 기자 = 대구환경공단(이사장 윤용문)과 중원환보고빈유한공사(중국) 간 환경사업 협력교류를 위해 대구시의회(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오철환 등 8명) 및 대구시(경제정책과장 등 3명)와 지역 유관기관(테크노파크, 디지털산업진흥원) 원장 등 14명이 중국 정주시를 방문하고, 환경사업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과 시장개척에 들어갔다.

이번 방문 목적은 정주시 중원환보고빈유한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및 협력 방안 논의와 지역 물 관련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지원과 물산업클러스터를 홍보하기 위함이다.

정주시는 중국 하남성의 성도이며 인구는 약 920만명, 주요 산업은 금속 및 전자재 공업으로, 대구시와는 2016년 1월16일 업무협약을 체결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중원환보고빈유한공사는 정주시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는 공기업으로 자본금 약 3억위안(한화 485억원 정도), 오수처리장 11개(총 시설용량 315만m³/일)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의 검증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인 건조연료화 시설에 많은 관심을 표명해 2016년 7월 관계자들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주요시설을 견학했다.

이에 대구시와 대구환경공단은 지역에 연고를 둔 (주)엔바이오킨스의 중국 합자회사인 강소필립환보공정유한공사의 중원환보 슬러지 처리시설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뉴데일리, 2016.9.25. 보도>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 환경·의료산업 중국진출 지원

강승탁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6.09.25 21:12:46

t f Flip 기사 보내기 ✉ ☰ - +



▲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오철환)는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중국을 찾아 환경과 의료분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펼쳤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오철환)는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중국을 찾아 환경과 의료분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에 나섰다.

특히 지난 21일 대구환경공단과 하남성 정주(정저우)시의 중원환보지분류한공사간의 기술 개발 및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24일에는 산시성 서안시의 K-뷰티 메디컬센터를 방문, 의료분야 교류 협력 강화 방안도 모색했다.

24일 열린 서안시 K-뷰티 메디컬센터 방문에서는 국립 서안 제2부속병원 원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구순구개열 공익치료프로젝트' 지원 활성화와 한국의료 산업이 무궁무진한 중국시장에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찾았다.

오철환 위원장은 "대구시의 우수한 의료기술과 하수처리 및 각종 폐기물 처리에 축적된 노하우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지역경제 성장의 한 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지역산업의 부가가치 증대와 청년일자리 창출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Google에 의해 종료된 광고입니다.

이 광고 그만 보기

이 광고가 표시된 이유 ⓘ

<대구신문, 2016.9.25. 보도>

정치	지역 환경·의료산업 중국 진출 문 열었다		
종합	기사전송 2016-09-25, 21:11:43	目 독자한마디 글자크기 + - ☰ Twitter Facebook Google+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
中 기업과 교류협력 MOU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지역의 환경 및 의료산업 중국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 지난 19일부터 25일 까지 중국을 방문, 관련 업계와 교류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했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지난 21일 중국을 방문, 대구환경공단과 하남성 정주(정저우)시의 중원화보 지분유한공사 간 기술개발 및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 24일 산시성 서안(시안)시의 K-뷰티 메디컬센터를 방문, 의료분야 교류·협력 강화 방안도 모색했다.(관련기사 10면)

25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경환위는 대구환경공단과 중국 중원화보지분유한공사 간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환경기초시설 운영노하우 및 기술 상호교환 △양 기관간 환경친화적 공동사업 발굴 및 육성 △양 기관이 추천하는 우수기업간 매칭시스템 구축 △신규, 개선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조사연구 자료제공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자원의 교류 및 교육 △양 기관이 상호 교류시 취득한 한·중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이다. 특히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시범사업, 수질오염처리 및 수질환경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조속한 전개 등 가시적인 협력방안도 포함해 협약의 실효성이 높았다고 시의회는 밝혔다.

경환위는 이어 산시성 서안시 K-뷰티 메디컬센터 방문에서 국립 서안 제2부속병원 원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구순구개열(언청이, 토순 등) 공익치료프로젝트' 지원 활성화와 한국의료(치과·성형)산업이 중국시장 진출에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모색했다고 덧붙였다.

오철환 위원장은 "대구시의 우수한 의료기술과 하수처리 및 각종 폐기물 처리에 축적된 노하우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만큼 해외진출의 길을 터는 작업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뉴스통신, 2016.9.23. 보도>

대구시의회, 환경·의료산업 중국 진출 모색

경제환경위원회, 대구환경공단 MOU 체결 주선...K-뷰티 메디컬센터 등 방문

(아시아뉴스통신=윤석필기자)

기사일련 : 2016년 09월 23일 14시 08분



21일 중국 정저우시 중원환보지분유한공사에서 대구환경공단과의 기술개발 및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이 열리고 있다.(사진제공=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오철환)는 19일부터 25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지역 환경·의료산업의 중국 진출 및 교류 방안을 모색한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21일 대구환경공단과 중국 하남성 정저우시 중원환보지분유한공사 간의 기술개발 및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을 주선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구시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운영, 개선 등 환경분야의 기술개발 및 교류협력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시범사업, 수질오염처리 및 수질환경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조속한 전개 등 가시적인 협력방안도 포함해 협약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어 24일에는 산시성 시안시의 K-뷰티 메디컬센터를 방문해 국립 시안 제2부속병원 원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구순구개열(언청이, 토순 등) 공익치료프로젝트' 지원 활성화와 치과, 성형 등 의료분야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오철환 위원장은 "대구시의 우수한 의리기술과 하수처리 및 각종 폐기물 처리에 축적된 노하우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지역경제 성장의 한 축이 되는 것은 물론 지역산업의 부가가치 증대와 청년일자리 창출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